



LG전자, 라이프스굿 봉사단 나눔 활동

LG전자는 라이프스굿(Life's Good) 봉사단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봉사단은 장애인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추석 음식을 준비했다. 또 미리 준비한 떡도 선물했다. /LG전자



중견련-충북도, 중견기업 자금조달 '맞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6일 충청북도청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견기업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한국중견기업연합회 김현철 상근부회장,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강공원 환경정화 봉사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과 창립기념일이 있는 9월을 맞아 지역사회와 그 의미를 나누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교육청

내일 서울국제교육포럼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9일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포럼을 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는 연세대와 공동 주관하는 '2026 서울국제교육포럼(SIEF 2026)'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리터러시, 세상을 읽고 생각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 서 열리며, 서울교육공동체와 국내외 유관 기관, 교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인사 ◆연세대학교의료원 ◇의과대학 ▲피부생물학연구소장 박창욱 ◇보건의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주임교수 김치년 ◇용인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장 최문석 ▲감상선내분비외과장 이초록 ▲대장항문외과장 김태형 ▲소아외과장 호인걸 ▲유방외과장 이준상 ▲위장관외과장 방희재 ▲이식중환자외과장

부음 ▲김성연씨 별세, 김용진(국민의힘 공보국장·前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씨 장인상=17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19일, 02-2030-4444

SK하이닉스, 내달 3만명 초청 'ThanksFULL Day' 개최

주요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 초청 동행·감사 주제 다양한 행사 진행

SK하이닉스가 주요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 3만여 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반성장 행보를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월 15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130여 개 주요 협력사 구성원 8000여 명과 가족 등 약 3만 명을 초청해 'ThanksFULL Day'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명 'ThanksFULL Day'에는 함께 성과를 만들어온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감사(Thanks)의 마음을 가득(FULL) 담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반도체 기술 개발과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전문성과 현장 구성원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이들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SK하이닉스 'ThanksFULL Day' 초청장. / SK하이닉스

행사는 '동행'과 '감사'를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꾸며진다. 참석자 전원에게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고 어린이 참석자에게는 랩을 본뜬 입체 크래프트 등이 포함된 '키즈 굿즈' 세트를 전달한다.

김영호 대표, '2026 한국경영대상' 수상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서비스 고객만족 부문 대상

삼성전자서비스가 전국 서비스센터에 예약제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원격진단을 강화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잇따른 수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김영호 대표이사 부사장(사진)이 '2026 한국경영대상' 최고 경영자(CEO) 분야 고객만족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한국경영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CEO를 선정해 시상한다.

김 부사장은 '고객 최우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전국 모든 서비스센터에 예약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미리 정해 방문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시행 이후 고객 만족

도와사전 예약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싱스(SmartThings)와 연계한 가전제품 원격진단(HRM)을 통해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엔지니어 방문 없이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 강화는 외부 평가에서도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한국표준협회의 '2026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제품·후대전화·컴퓨터 AS 전 부문 1위에 올랐다. 전자제품 AS 업계에서 25년 연속 1위다. 컴퓨터 AS는 25년, 후대전화 AS는 23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가전제품 AS는 통산 22회 1위를 차지했다.

김영호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은 "한국경영대상 고객만족 부문 2년 연속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고객 최우선' 철학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태광그룹, 노사합동 플로깅 캠페인 전개

티시스 CS사업본부 노사협 위원 참여

태광그룹 레저·인프라 계열사 티시스 CS사업본부는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합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로깅은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길가의 쓰레기를 함께 줍는 친환경 활동이다. 이번 플로깅은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노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은 회사 건물에서 영등포역까지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노사 간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보냈다.

티시스 CS사업본부 노사협의회는

2018년 자발적 소통 기구인 '두드림(DO! DREAM) 제도'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임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서별로 7명의 위원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2019년 CS사업본부 노사협의회 운영이 결정되면서 두드림 간담회를 노사협의회로 전환했다.

티시스 CS사업본부는 노사 간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면서 임직원 복리후생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2019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12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5건을 조치 완료해 약 71%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 경영진도 현장에서 협력사 구성원과 가족들을 직접 맞이한다. 차선용 미래기술연구원장(CTO)과 이병기 양산총괄(CPO) 등이 행사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을 환영한다. 과노정 대표이사 사장(CEO)도 행사장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기술·금융·경영 전반에 걸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향후 5년간 1조 4000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 부담을 겪는 협력사를 위한 'R&D 도전보상제'와 보유 특허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IPR Sharing 자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 '트리니티 랩'을 구축해 2027년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협력사에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해왔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도 약 3047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 계획이다.

과 CEO는 "협력사는 K-반도체 경쟁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동반자요, SK하이닉스의 성과 역시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온 협력사 구성원들의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다"며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협력사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서울청년주간 '나눔냉장고' 운영

식품사업 역량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CJ제일제당이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먹거리 지원을 비롯해 식품사업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 식품 기부를 넘어 영양교육과 사회적 관계 형성, 희귀질환자를 위한 제품 생산 등 지원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오는 18~1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6년 서울청년주간'에 참여해 'CJ제일제당 나눔냉장고' 부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식품 나눔과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여 청년들에게 핫반 등 식품을 제공한다. 핫반 용기 수거와 생분해성 바이오소

재 PHA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나눔냉장고는 CJ제일제당이 서울시와 함께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서울청년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식품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핫반과 냉동식품 등으로 구성된 식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2026년 기준 서울청년센터 9곳에 나눔냉장고가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약 4만 3000명의 취약청년에게 식품 꾸러미를 지원했다.

지원 방식도 식품 전달에 그치지 않는다. 식습관 자가진단과 영양교육을 비롯해 쿠킹 클래스와 소셜 다이닝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그룹,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600개 협력사 대상 649억 규모 지급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649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일정을 최대 10일 당겼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6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순차 지급이 이뤄진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